

16 요한복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성경말씀: 요5:16-23

오늘 2020년 첫 주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

2019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히 국가적으로 사회주의 재앙이 닥쳤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으로 나라 유지, 큰 감사

하나님께서 2020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실 줄로 믿는다. 간절히 기도하자.

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문제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는다. 간절히 기도하자.

새해 첫 예배, 여러분도 기대하고 나옴, 나도 고민,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복을 받으며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는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의 일, 사람의 일 모두 해야 한다. 그것이 나, 가정, 국가를 살리는 길, < >

안식일 문제

4장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가 5장 다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심

이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는 병자를 고치심, 8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육신의 병을 고친 것, 또한 죄 병의 고침, 구원

예수님은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심(14)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예수님은 드디어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과 싸우기 시작함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의 길이다.

1500년 전에 율법이 수여됨, 사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됨

마15:2-3, 7-9, 유대교 자체가 사람들에게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가르침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 아마도 병자는 너무 기뻐서 주랑에서 뛰어다니며 하나님 찬양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라(10), 이것은 마귀의 자식들의 반응, 같이 감사해야 하지 않나?(롬12:15)

율법 자구에 매여서 자기들의 전통에 매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막2:27-28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마9:12-13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의식과 제도, 규칙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게 된다(16).

유대인들의 치리 기관 산헤드린 공회는 새로운 랍비의 새로운 가르침에 신경을 쓴다. 침례자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범함(눅4:31-37; 마12:1-8; 12:9-14; 요5).

이들의 문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법과 제도의 감옥으로 만듦

예수님의 응답(17-18),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모든 것이 보기 좋음, 하나님이 안식하심(창2:1-3), 창조의 안식

그런데 창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로 쉬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심, 당연히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심

예수님의 말씀: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는 것(요4:34), 구원 사역

더 큰 문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18),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 유대인들의 아들 용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 하나님의 아들(신성), 사람의 아들(인성), 위로의 아들(행4:36), 멸망의 아들(요17:12)

그러므로 이것은 한 마디로 신성모독, 그것도 극심한 신성모독 사형 받을 죄

이때부터 종교인들의 핍박 시작, 이유 없이 그분을 미워함, 결국 십자가

그러면 그분은 왜 동등함을 주장했을까? 아버지와 동등하시므로

그분은 하나님(요1:1-3),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요20:30-31; 요일5:20)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어떻게 아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한다(17)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17).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한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므로 일해야 한다.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사람이 일하는 것을 기록함(창2:15, 3:19).

유대인들의 특징: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교육

조선시대의 폐망: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쓸데없는 탁상공론, 사농공상, 상공농사가 되어야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11장을 보라.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모두 부지런히 일함
잠언은 유대인들의 생활 지침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교훈 중 하나: 일해야 한다. 잠6:6-11, 전9:10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처럼 열성으로 부지런하게 완벽하게 해야 한다.

1. 인간으로 기본이 되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일, 특히 가장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가정 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내 인생과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2. 학생들(잠22:29), 꼭 고관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휴대폰 등 집어치우고 concentration 몰입해서 일하는 것 배워야 한다.
3. 우리는 이것 이상을 해야 한다, 주님이 맡겨 주신 일이 있다.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의 대위임의 말씀, 먼저 공부하고 알아야 전하지 않겠는가? 알고 전하자.
4.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점점하며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걷는 것, 어쩌면 가장 힘든 일, 핵심 온전한 가정생활,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한다.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신실하게 일할 때에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요4:34).